

“고국에 마음껏 소식 전하세요” 다문화 국제우편료 지원

도-전남우정청, 이주노동자·수출기업 등 국제특급우편 요금 감면
통번역 서비스·다문화 엄마학교·청소년 진로 지원 등도 지속 확대

전남도가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살이 지원에 나섰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전남지방우정청과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국제특급우편(EEMS) 요금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외국인 선원, 다문화 가족 등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이주노동자들은 우체국 국제특급우편 이용 시 우편요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우정청과 이용 대상자 확대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 수혜 대상에는 도내 수출기업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같은날 '2025년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는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

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협력사업 발굴에도 머리를 맞댔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2014년부터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사업 유형을 확대·세분화했다. 주요 사업은 역량 강화 교육,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문화·체육 행사, 공동체 운영지원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 전남다문화사회적협동조합, 한마음, 한국뿌리산업진흥협회, 동부권의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 여주시가족플러스센터 등 총 6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업 성과 점검과 기관별 우수사례 공유,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정기적 소통과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밖에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청소년



외국인정착지원사업 수행기관 간담회에 참여한 관계기관 종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진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는 ‘다양성의 만남, 하나 되는 전남’을 목표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

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이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한 국제우편 서비스를 누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외국인주민

이 정착 초기부터 안정적 생활을 누리고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해상풍력 글로벌 기업 유치 ‘총력’

유럽 최대 해상풍력전시회 참여
인프라·인센티브 등 홍보 박차
코트라와 풍력 투자 컨퍼런스도

전남도가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를 팔을 걷어붙였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다,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목표(177.9TWh)의 37%를 책임질 정도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오는 2035년까지 3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신안(16개소), 영광(16개소), 여수(11개소) 등 59개소에 18.7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이 허가받을 정도로 압도적 경쟁력을 갖춘 상태다. 지난해만 해도 전 세계에 160GW(기가와트) 이상의 풍력 터빈을 공급하는 최대 기업인 베스타스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유럽 최대 규모 해상풍력 산업 전시회(Wind Europe 2025)에 참가해 기업들을 면담하고,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와 투자 인센티브 등을 홍보하는 등 글로벌 기업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전시는 해상풍력 산업의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알 수 있는 유럽 최대 규모 전시회로, 550여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 정책 결정자, 연구기관 등 1만 50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협력해 한국 풍력 투자환경 컨퍼런스를 개최, 전남 풍력산업의 강점을 강조하면서 해상풍력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 또 부품 제조업체 및 프로젝트 개발사들과의 1대1 비즈니스 미팅에서 목포 신항을 소개하고,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설명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Wind Europe 2025 참가를 계기로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력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코트라와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전남을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벼 값아먹는 왕우렁이 잡아라 도, 영농철 앞두고 수거기간 운영

전남도가 왕우렁이로 인한 벼 재배 농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영농철을 앞두고 4월 한달 간 왕우렁이 일제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왕우렁이 투입 전 농수로 주변 왕우렁이 집중 수거 활동을 펼친다.

왕우렁이는 논·벼 잡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내는 농법이다. 그러나 겨울이면 폐사해야할 왕우렁이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겨울을 나게 되면서, 다음 해 식재한 모를 값아먹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남 대흥사·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 관광공사,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해남 대흥사와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신규 우수 웰니스관광지’ 공모를 통해 해남 대흥사와 마음건강치유센터 두 곳을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도내 우수 웰니스관광지는 총 8개로 늘었다.

올해 우수 웰니스관광지는 전국 66곳이 선정,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최종심의를 거쳐 총 11곳이 선정됐다.

대흥사는 천년 고찰에서 즐기는 숲명상과 초의선사의 다도체계를 중심으로 한 템플스테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자연친화적인

치유 환경을 기반으로 한 건강검진과 뜸, 침 치료 등 아로마테라피를 결합한 통합의학치료 프로그램이 높게 평가받았다.

전남도는 우수 웰니스를 관광 상품화해 팸투어 등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웰니스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 특화여행상품 기획을 통해 웰니스 관광지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신규 지정된 대흥사와 마음건강치유센터 외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남 우수 웰니스관광지는 순천만국가정원&습지, 장흥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국립장성숲체원, 보성 전남권환경성질환경예방관리센터, 장흥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안 태평염전 해양힐링스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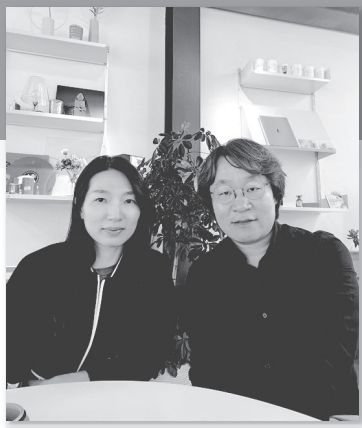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